

#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



관세청은 2009년부터 발굴한 FTA활용 사례들에서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증대로 연결한 사례 등 유의미한 내용을 그룹화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간하였으며, 동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. 아울러,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별로 활용사례도 같이 수록하였다.



## 01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

### 개요

- 한계점에 도달한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보다는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FTA 특혜세율의 수혜효과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기업 외형성장 유도 모델

### 비즈니스 모델

- 상대적으로 절감이 어려운 재료비 등의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경영체제 전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'수출량 증대 ▶ 생산시설 확충 ▶ 고용 창출'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
  -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해외시장 선점은 곧바로 주문량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산라인 증설과 직원고용이라는 선순환 효과 거양
  - 원청기업의 주문량 파이(pie) 확대는 곧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(trickle down effect)로 직결되어 원청기업과 동일한 고용효과 기대

####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



### 활용 및 확산분야

-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기업
-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

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**활용사례 1**

**우물안 개구리,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!**

**기업 소개**

- K사는 17년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지폐계수기를 각고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여 국내시장 석권(국내시장 점유율 1위)
- 동사의 지폐계수기는 원화, 외화의 위폐감별기능 외에 외화계수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제품으로 『국산신기술인정서』 획득

**FTA 활용전 상황**

-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유럽시장(약 30%)이 재정위기 여파로 '11년 초부터 급속도로 냉각되어 주문량이 감소함에 따라 1달간 공장가동을 정지하는 등 총체적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
-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한-EU FTA, 한-미 FTA 발효 등의 낭보가 들려왔지만 실효관세율 2.2% 철폐는 가격경쟁력에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CEO 등 관리자는 FTA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
- 수출입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 위주 150여 개 영세협력업체의 CEO 또한 종전 거래관행 선호 및 FTA 무관심 등으로 전형적으로 FTA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

**장애 요소**

- '11.7.1. 한-EU FTA 발효 이후 유럽 바이어들은 K전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자 CEO 등은 FT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됨
- 그러나 FTA 활용을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적이거나, 처음 접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준비소홀 및 수많은 부품공급 협력업체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FTA 준비는 거의 제로(0) 수준

## 극복 방법

- (정부지원 적극 활용) 우선, 세관과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FTA 설명회와 컨설팅 등에 실무자를 의무적으로 참석\*하게 하여 FTA 실무능력 배양에 주력

\* 초기에는 FTA 업무에 대한 추가부담과 책임으로 직원들이 기피하였으나, 참석자에게는 별도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교육참여 분위기 확산

- (문제해결팀 구성) 그간 배운 FTA지식을 토대로 사내 FTA해결팀을 구성·운영하여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새로운 FTA 경영환경 구축

\*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을 위해 1차 소요부품별 품목분류를 정립하였고, 모호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

- (FTA인프라구축)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비가 필수이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\*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대안으로 관세청에서 개발한 FTA-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 비용 절감

\* 전산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한 결과 약 4~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회신

- (협력업체 교육) 150여개 부품공급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징구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뒤 협력도를 측정하여 그에 걸 맞는 수주량 조정

\* 원산지확인서 징구에 대한 협력도가 낮은 부품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거절 등 고강도 대응으로 FTA경영체제로 흡수

## 활용 효과

- 다각적 노력을 통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유럽 바이어에게 당당하게 C/O를 제공하였고, 그 결과 무관세 통관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매출실적 3배 거양\*

\* 이탈리아 ○○바이어 대상 '10년 2백만불 매출 → '11년 6백만불 매출

- 한·EU FTA 학습효과로 한·미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가능해져 對미 수출액이 87% 증가(283천불→530천불)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 매출상승 추세

- FTA 활용은 결국 주문량 증가로 이어졌고 동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라인 증설과 아울러 30명을 신규 고용하였고,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조립공정을 일부 위탁하여 장애인 근로 창출(35명)



위탁생산

라인증설

### 시사점

- 치열한 원가경쟁 하에서는 낮은 수준(2%)의 관세인하 효과도 가격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인 변수인 점을 감안, 관세철폐를 가격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제시할 수 있도록 FTA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
- FTA 활용을 통한 수출(매출)액 증대는 생산시설 확충과 고용증대를 견인하여 기업의 외형적 성장 유도

####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활용사례 2

### F1(FTA No.1) 그랑프리, 거침없는 무한질주!

### 기업 및 제품소개

- N사는 끊임없는 자동차엔진 R&D투자로 시동모터와 발전기 분야인 Starter와 Alternator의 No.1 Maker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
  - 주요수출국은 멕시코(65%) ▶ USA(12%) ▶ EU(8%) ▶ 중국(8%) ▶ 브라질(5%) 順

#### ● 제품소개

품 목	세계시장 점유율
고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(Heavy duty Starter & alternator)	20%
저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(Light duty Starter & alternator)	13%



### FTA 활용전 상황

-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에 직면

<b>01</b>	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경쟁구도 심화 ▶ '09년 대비 업체수 2.4% 증가	<b>02</b>	국내외 경기침체로 매출액 감소 ▶ '09년 대비 매출액 10.2%감소
<b>03</b>	국제유가·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 ▶ 최근 20년간 유가·원자재 400%, 300%이상 증가	<b>04</b>	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경쟁 심화 ▶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 목적 비관세장벽강화

### 장애 요소

무역부 김과장 설명회란 설명회는 모조리 다녀 이제 FTA에 대하여 조금은 안다고 생각이 들지만,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.

- ① FTA이해부족 : 각 기관의 설명회 및 교육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
- ② 직원들의 무관심 : "FTA는 무역팀 담당자만의 업무"라는 인식 팽배
- ③ 협력업체 무관심 :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, 정보부족 등 이유로 FTA활용포기
- ④ 협정위반의 강도 높은 제재와 업무과부하에 대한 두려움

### 극복 방법

- (1차 진단) 세관 FTA집행센터 컨설팅을 통한 회사 진단/처방 파악

진단결과 문제점	Solution제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FTA의 정확한 인식과 정보 부족</li> <li>● 고객사 주관의 주입식 원산지 확인서 관련 교육의 한계 ▶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어려움</li> <li>● 발급된 확인서의 신뢰성 문제 및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감 팽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FTA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식의 전환 유도</li> <li>● 완성품 제조·공급기업 및 협력업체의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유도 ▶ 신뢰성 있는 FTA관련 서류 발급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대비</li> <li>● 한-EU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방안 강구(역내산 누적기준 활용)</li> </ul>



● (2차 실천계획) FTA활용을 위한 로드맵 수립

중점 추진 활동	세부 실행 계획
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/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인원 총원(전담자 1명+담당자 1명)</li> <li>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(전담자)</li> </ul>
전사적 원산지관리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FTA추진 TFT 구성확대</li> <li>원산지관리 사내 경영규정 제정</li> </ul>
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내 ERP SYSTEM 개선</li> <li>협력사관리시스템 개발추진(Partner System개발)</li> </ul>
협력사 관리 방안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력사 교육/검증 계획 수립(Top&amp;Down 맞춤형)</li> <li>인증수출자 취득건설팅 진행</li> </ul>
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총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요 품목 5개 선정</li> <li>협정별 원산지소명서 작성</li> </ul>

● (3차 검증대비)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role model 수립

- (모니터링 결과)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낮음
  - \* 본부세관 사전검증(11.8월), 고객사(현대차, 모비스) 검증(11.9월, 11월)
- ▶ FTA상대국의 고객사 대상 원산지검증시 “1차 협력업체 자격”으로, “당사에 대한 원산지검증”, “하위 협력사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검증” 필요

역할 1	국내거래에 대한 고객사에게 “원산지확인서” 교부
역할 2	직접 수출물품에 대한 “원산지증명서” 발급
역할 3	국산원재료에 대해 협력사들로부터 “원산지확인서” 수취

● 협력사와 상생적·유기적 관리체계 구축

- 협력사에게 원산지검증,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등 총체적 지원을 하고 원산지검증을 자체 실시\*한 결과, 아래와 같이 성과 거양
- \* 검증방법 : 자율사전+세관합동 현장검증 (68개 업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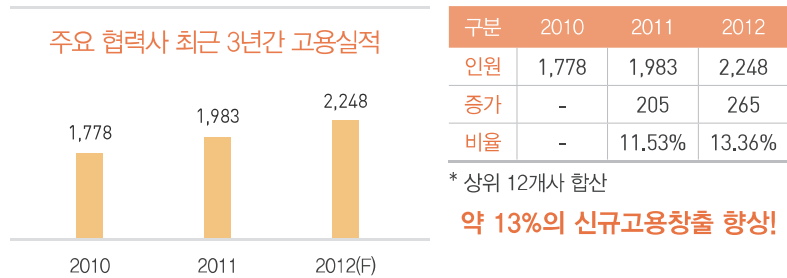
구 분	결과 및 시사점
자율사전검증 (12년 3월)	S등급 3개, A등급 3개, B등급 5개업체 (원산지관리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나 협력사의 인식변화가 큰 성과)
현장검증(6월)	B등급 이상 11개에서 30개로 비약적 향상

- 협력업체들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



### 활용 효과

- 수출경쟁력 확보 및 협력사로의 FTA성과 향유
  - 한-EU 및 한-미 FTA 협정에 따른 해외바이어 관세절감 : 338,539불
  - 협력사 매출액 30% 향상 등 협력사로의 FTA 성과 확산
- 국내산업 활성화
  - (일자리 창출) 협력사 상위 12개 업체 평균 13%의 고용창출



- (新성장동력 확보) 신규사업분야(Alternator) 확장, 제조라인 증설

### 시사점

-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공동노력은 수출량 증대로 이어져 발주량 증가 등 협력관계의 공고화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등 기업규모 확장까지 견인할 수 있어 Win-Win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 구조라는 인식 필요



## 02 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

###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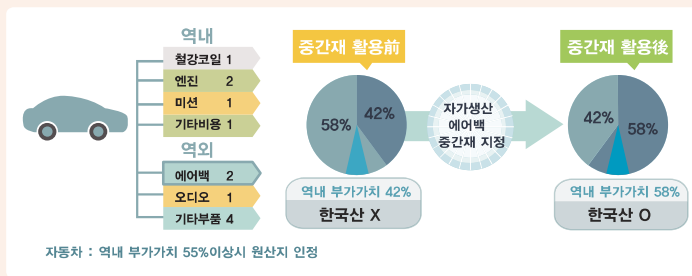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간재로 사용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중간재 규정 활용을 통해 FTA 활용을 제고 가능 모델
- 중간재 규정에 대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판단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

**중간재**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중간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를 무시하고 **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로 취급**해 주는 것

### 비즈니스 모델

- 부가가치 기준 적용 원산지 판정할 때 미세한 차이로 충족/불충족 시 적용
-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용이

#### 중간재 규정 이용 모델



#### ■ 협정별 근거규정 비교

구분	칠레	미국	싱가포르	페루	인도	아세안	EFTA	EU/터키
인정여부	○	○	○	○	×	×	○	○
지정의무	○	×	○	×	×	×	×	×
대상물품	자가 생산품	자가 생산품	자가 생산품	역내 생산품	×	×	역내 생산품	역내 생산품

**활용 및 확산분야**

- 모든 산업분야 및 중간재 적용 FTA

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 **활용사례 1**

**차근차근 풀어보는 FTA, 모범답안을 찾다!**

**기업 및 제품소개**

- C사는 유압브레이커 생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대표적인 수출중소기업임
- 미국, 홍콩,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기계 안전규격 획득을 시작으로 ISO 9001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 향상과 상품 차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노력

● **제품소개**

거래품명	HS CODE
유압브레이커	8431.49
물품사진	
용도설명	<p>굴삭기의 유압펌프에서 발생하는 유압에너지를 받아 이를 장비내부의 충격에너지로 변환하여 목적물의 파쇄를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로 콘크리트 파쇄 및 아스팔트 파쇄와 각종 배수로, 관로공사, 도로공사, 석산 등 암석파쇄작업 및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의 암석 굴착용 장비임</p>

**FTA 활용전 상황**

- C사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의 약 66%를 차지
- 관세율 차이가 5% 이상으로서 FTA실익이 매우 큼
-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, 협력업체 비협조 등의 이유로 FTA 미활용



### 장애 요소

- 한-아세안 FTA와 한-인도 CEP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(CTH 또는 CTSH) 불충족
- 원재료 공급처인 B사 등으로부터 원산지(포괄)확인서 등 역내산이라는 원산지 확인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워 활용 포기 상태

### 극복 방안

협정	품명	세번	원산지 결정기준	적용 기준	미소 기준	실행 세율	협정 세율
한-아세안 FTA (캄보디아) (말레이시아) (태국)	유압 브레이커	8431.49	CTH or RVC40%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. 1.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. 40%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	RVC 40%	10% (가격)	15% 5% 1%	10% 0% 0%
한-인도 CEPA	유압 브레이커	8431.49	CTSH & RVC35% •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. 다만, 35%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.	CTSH & RVC 35%	10% (가격)	12.5 /kg	5%

극복 과정	주요 내용
미소기준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7개 원재료 중 원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액이 작은 원재료 O-ring 등 48개품목은 미소기준 적용</li> <li>• 미소기준은 물품가격의 10% 이내 범위의 역외산 원재료는 세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됨</li> </ul>
수입원재료 거래선의 전환(중국 → 국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국 '0000'로부터 수입하는 'MOUNTING BRACKET ASSY' 등 4개 품목은 국내 업체인 '000'로 거래선 전환</li> </ul>
중간재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요 부품 실린더는 원재료인 철강 잉곳을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재 기준 활용</li> <li>• 중간재 지정으로 역내부가가치 상승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가능</li> </ul>
협력사 설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VALVE HOUSING' 등 미소기준 적용 이외 품목에 대하여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발급 유도</li> </ul>

- 한-아세안 FTA 원산지기준(RVC 40% 이상)을 종전에는 미충족하였으나, 당사에서 생산하는 주요부품인 철강잉곳을 중간재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(RVC 51%)

직접재료비		직접경비, 제조간접비	판매 /일반관리비	이익	FOB가격	RVC비율 (%)
역내	역외					
4,389,492원	6,237,357원	3,847,251원		1,274,900원	12,749,000원	51%

### 활용 효과

- FTA를 통한 바이어의 수입 관세인하 효과와 일부 중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의 수입선을 국내로 전환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국내 원재료 사용 촉진

### 시사점

-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FTA협정에서 인정하는 미소기준, 중간재 규정 적용 및 원재료 일부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 적극 활용한 사례

#### 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 **활용사례 2**

### 중간재 활용으로 한-EU FTA 원산지규정 극복

### 기업 및 제품소개

- D사는 DVR(디지털 영상저장장치)를 제조하여 주로 유럽,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체

#### ● 제품소개

수출물품 (HS)	적용 FTA	원산지결정기준	관세율(%)	
			MFN	FTA
DVR (8521.90)	한-EU	MC 45%*	13.9	0 (5년간 균등철폐)

\* 역외산 원재료비율 45%이하

## FTA 활용 상황

### FTA 활용시 장애요인

- 역외산재료 사용비율이 높아 원산지 불충족 판단 ▶ FTA 활용 포기
-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인증수출자 신청절차등에 대한 이해 부족
- 다수 부품(200여개)에 대한 품목분류 애로

### 활용과정(극복과정)

- FTA 활용 Total Consulting

인증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우편물 발송, 전화상담을 통한 인증제도 홍보</li><li>•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절차 안내</li><li>• 원산지결정기준 설명 및 기준 미충족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</li><li>• 역외산 재료 비율이 높아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인증 포기</li><li>• 200여개 부품의 세번 검토에 장시간 소요</li></ul> <p>*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(=중간재)의 가격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로 인정 가능</p>
인증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수출물품, 원재료 가격 산정 방법 안내</li><li>• 원산지소명서, BOM 등 구비서류 작성 방법 안내</li><li>• 원재료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 제시</li><li>• 중간재* 규정 적용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함을 컨설팅</li><li>•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재료 세번 검토</li></ul>
인증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 등 활용 방법 안내</li><li>• 서류 보관 등 사후관리 방법 안내</li></ul>

-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으로 FTA 활용 토대 마련
  - 인증수출자 준비로 전사적 원산지관리 체계 정비,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
  - 한-EU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 획득('11.6.28)

## 활용 효과

- 한-EU FTA 활용으로 관세절감·수출증대 예상
  - 관세절감 : 연간 약 7만불('10년 당기순이익의 14% 상당액)
  - 수출증대 : 연간 약 30만불 예상
-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우위 확보

시사점

- 'FTA 교역시대' 진입으로 FTA 활용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, 원산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체별 특성에 맞는 FTA 활용 전략 수립
-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판정결과가 미세한 경우 '중간재' 규정 적극 활용

### 03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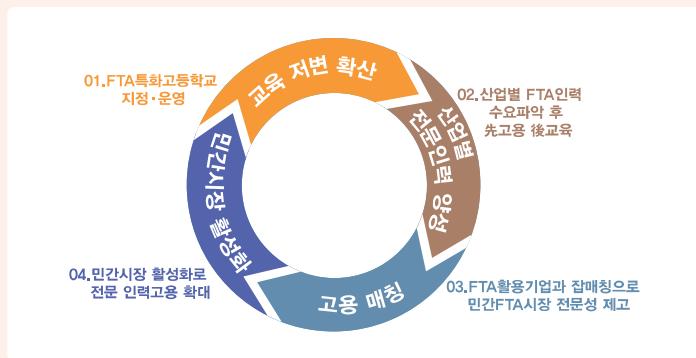
개요

- 원산지관리의 실행주체는 사람임
- 원산지관리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관에서 지원하는 Job Matching 사업을 통해 훈련된 원산지전담자를 확보하여 FTA를 활용하는 모델

비즈니스 모델

- 세관이 기업의 FTA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·양성한 인재를 현장으로 피드백
  - 경력 단절 여성, 특성화고 졸업생, 퇴직 공무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
  - FTA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

Job Matching 활용한 FTA 인재 영입 모델



### 활용 및 확산분야

- 영세 중소기업
- FTA 전문인력 구인기업

####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**활용사례 1**

### 이중마도 FTA 잘해요, 경단여성 FTA인재 일자리 창출

### 기관 소개

- 서울본부세관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연계 중심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협력하여 추진

### 잡매칭 과정

- FTA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적합한 과정을 선정한 후 세관 FTA교육으로 전문인재를 양성

#### ■ FTA 취업적합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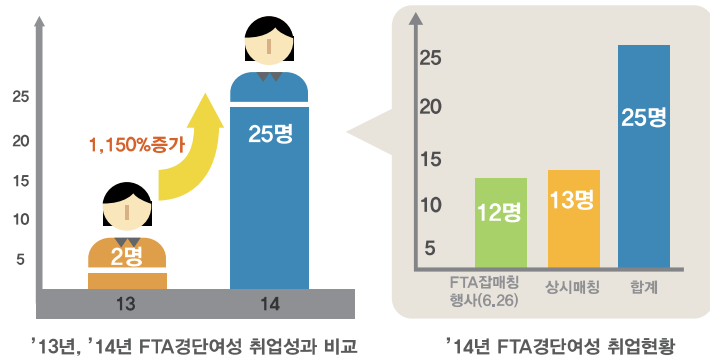
센터명	과정 (160~200시간)	FTA 관련 취업적합과정 선정 이유
영○	관세사무원	「무역~FTA~통관」까지 이론 및 실무교육 총괄, FTA 교육내용 다수 포함
영○	세무사무원	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, BOM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
구○	무역사무원	무역, 수출입, 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, 무역기본지식 보유
서○	회계사무원	통계추출 및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, BOM 및 부가가치기준 관련서류 작성에 유리
서○	무역전문가	무역~수출입~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, 무역 기본지식 다량 보유
중○	중소기업경리	회계장부 및 경리업무에 능숙, BOM 및 부가가치기준 서류 작성에 유리
성○	전산세무회계	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 가능, 전산실무에 능함, BOM 작성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

- 인천센터에서 전산회계과정 30~40대 경단여성(전산회계 1~2급 자격증 획득)을 대상으로 FTA강의를 의뢰
- 서울세관 「제1기 경력단절 여성 FTA 교육」 운영으로 FTA 전문가 14명을 양성하여 既실시한 '관세사무원 채용수요조사'로 상시매칭에 돌입
- 전국 최초 경단여성 대상 「FTA Job Matching Day」 행사 개최

**시소** 2014. 6.26(목) 09:30~13:00, 서울본부세관 별관 2층  
**구인·구직자** 약 75명 (구인업체 17개사, 경단여성 FTA 구직자 58명)

### 잡매칭 효과

- '14년 경력단절 여성 FTA인재 잡매칭으로 도약적인 취업률 달성
- ▶ 상반기임에도 전년대비 1,150% 증가



-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으로 구인업체에 재정 지원

일자리 창출 ▶ FTA 활용 증가 ▶ 수출증가 ▶ 투자·고용 증진

### 시사점

-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금 수여 등으로 양방향 수혜자 발생
- 사회진출 및 재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「인재양성교육·취업연계」까지 원스탑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제공 및 경제활동 참여 도모





- 영세 관세사무소에 지원금을 포함한 FTA인재 연계로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관세업계 활성화 제고

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**활용사례 2**

**FTA를 만난 학생들, 이건 특급기회야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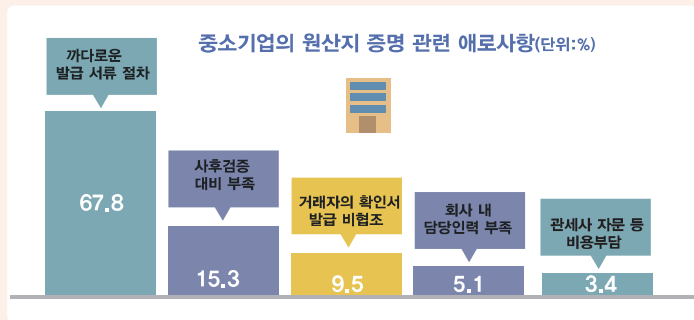
**배경**

- 중소기업이 채용가능한 고졸 FTA 전문인력을 세관이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, FTA활용 강소기업 육성 필요

**잡매칭 과정**

- FTA협정별 상이한 원산지 규정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FTA실무에 능통한 자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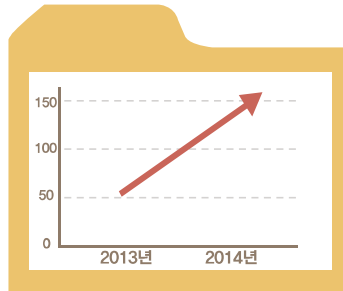
**FTA활용 시 애로사항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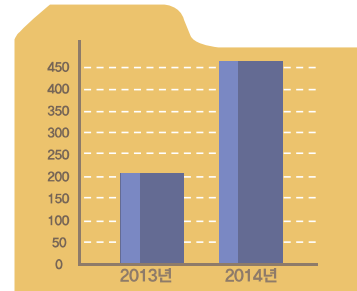
- 서울 유일의 무역업계 특성화고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매항 여자정보고, 경기상업고 등 FTA전문인력 과정\* 운영(총 9개교 433명 수료)  
\* (커리큘럼) FTA 이론·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기본역량 함양(3회 24시간)
- 구인기업·구직자 DB를 활용한 수시 매칭과 취업박람회 개최 「전문인력 육성 ▶ 고용 ▶ 중소기업 성장 ▶ 전문인력 고용 확대」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

**잡매칭 효과**

- 사회경험이 없는 특성화 고교생 등이 다양한 산업의 원산지관리 경험을 쌓아 기업선호인력으로 성장



특성화고 FTA교육시간 추이



특성화고 전문기양성 추이

- 특성화 고교생 FTA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신규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환경 마련

**시사점**

- 중소기업 FTA활용의 성공모델

**성공 요인**



- 성공사례를 통해 산업별 FTA전문인력 양성, 민간 FTA시장 활성화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 모델로 적용모델 확산